



STARRAFT®

HEART OF THE SWARM™



케리건

희망과 복수

카메론
데이턴

조드

클로빈
렘스



케리건

희망과 복수

글
카메론 데이턴

그림
조드

레터러
클렘 로빈스

아트 디렉터
더그 알렉산더

편집
미키 닐슨 & 케이트 게리

표지
조드 & 데이비드 로멜리
SPECIAL THANKS, 로렐 오스틴

크레이티브 디렉션
크리스 멘젠 & 브라이언 킨드레건



©2013 Blizzard Entertainment, Inc. All rights reserved. StarCraft, Heart of the Swarm and Blizzard Entertainment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Blizzard Entertainment, Inc.,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실험체는 휴식
중으로 보인다...

미동도 없다.

큰 차질이
있었지만 실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진실은
누구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실험실: 74521
실험체: 사라 루이스 캐리건(유령 24601번,
일명 "칼날 여왕")
실험 순서: 3차 이종 생체 분석
침관인: 빌리리안 맹스크
보안 등급: 알파

16 일차:
세 번째
생체 분석
시작.

앞서 두 번의 실험에서는 알아낸
것이 거의 없다. 실험체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실험체는 여기
도착한 이후 2주 동안
식사를 하지도,
수액을 맞지도 않았다.

깊은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자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생리학적인
저그와 인간 사이의
다툼에 의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정맥 주사를 시도했지만
격렬한 물리적 저항이
있었다. 본능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성적인 두뇌
활동이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 점이
사망한 부관들
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실험실: 74521
실험체: 사라 루이스
일명 "칼날 여왕")
실험 순서: 3차

그녀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이제 생각난다.

기억.

그 망할 녀석들이
모두 앗아갔다고
생각했다.
연합의 재사회화.
두뇌 청소, 초월체의
정신적 추행.
남은 게 없다고
생각했었다.

어린 소녀의 기억.

인간의 기억.
엄마. 아빠.

전쟁도

공포도

몰랐다...

...죽음도.

죽음도.

죽음도 그녀를
따르는 모양이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험체에게 어느 정도
의식이 돌아왔었다.

정신의 고치에서
빠져나왔던 걸까?
혼수상태가
지겨웠던 걸까?

악몽을 꿨는지도
모른다.

원인이 무엇이든, 그녀가
깨어남과 동시에 발생한
충격파로 참관실이
파괴되었고, 실험에 참여했던
기술자가 목숨을 잃었다.

또 한번의
죽음을
부른 사고.

어쩔 수 없이 다른
형태의 분석 방식에
의존해야 한다.

기분이
언짢다고 사람
이 죽어서는
안 된다.

악몽도
마찬가지다.

이제 실험체와
인간의
상호작용은
없다.

그녀가 그쪽을
선호한다.

인간에
대해 그녀가
아는 건
고통뿐이다.

폭력.



배신.

잠재된 힘이 발현되자,
그녀의 어린 시절은 산산이
조각났다.

테란 연합이 즉시
그녀를 나포했다.

그녀를 고립시키고,
변화시키려고 서툰
시도를 했다.

그들은 무기를
원했다.

불타고 있던 연합의
시설에서 회수한
파일을 살펴본 적이
있다.

그녀는 저항했다.
모친을 죽인
자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들이
그녀를
부쉈다.

그녀를
복종시켰다

살인하게
했다.

어린
소녀를
가뒀다.

그들이
괴물을
만들었다.

그들이 괴물을
만들었다.

괴물이 엄마를
죽였지만,
그들은 후회
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들었다.

괴물은 살인을 했고,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살인을 했고,
후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자유가 되었다.

나를 미워했어야 할
남자가 나를 구했다.

난 바보가 아니다. 아크튜러스 맹스크도
내가 살인하기를 원했다. 혁명에 동참하여
짐 레이너와 함께 연합을 무너뜨리길.

하지만 이번엔... 그들이 내게
부탁했다. 내게 미래를 말했다.

희망을 말했다.

내가 노력하면 날
아프게 한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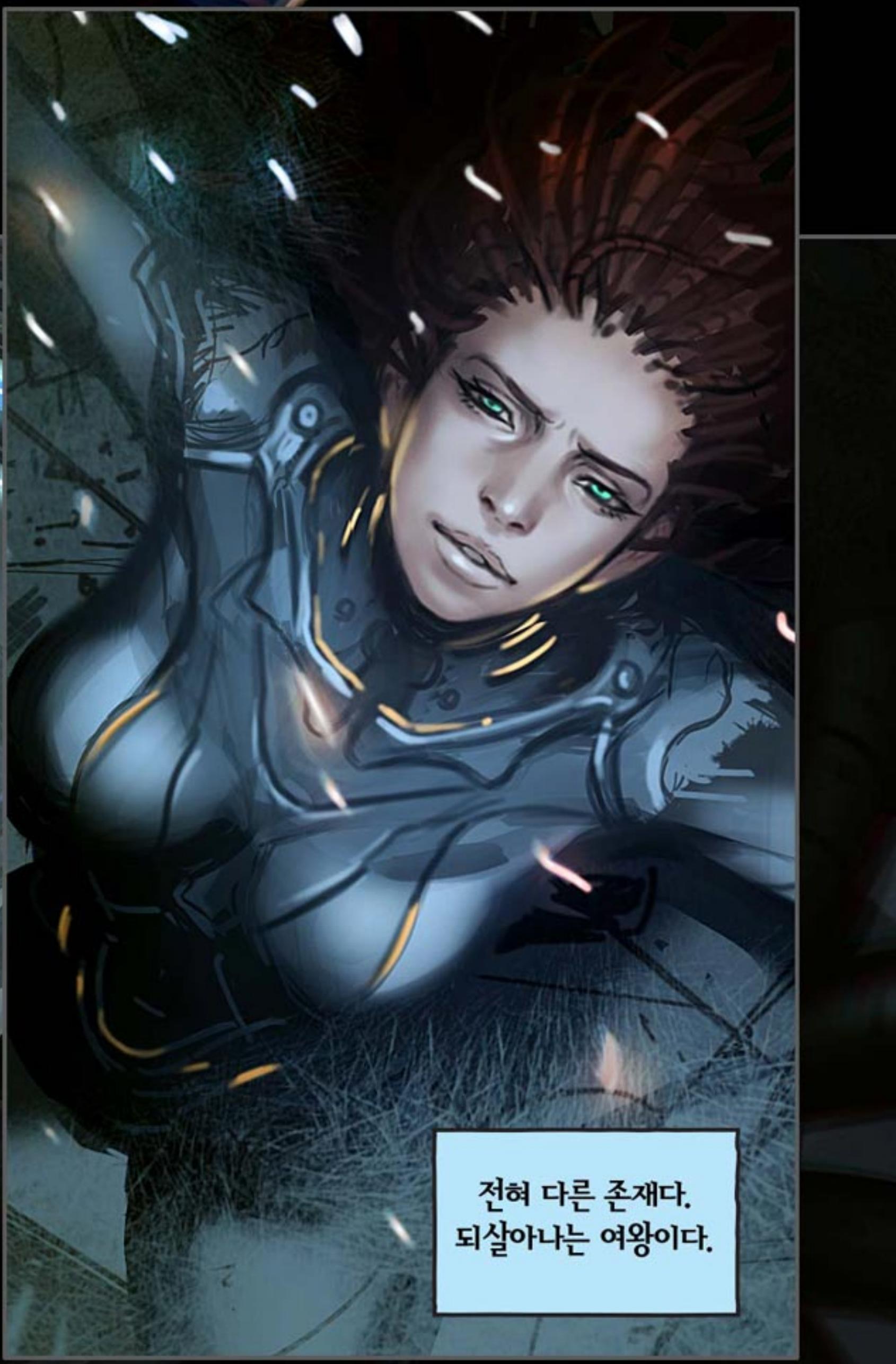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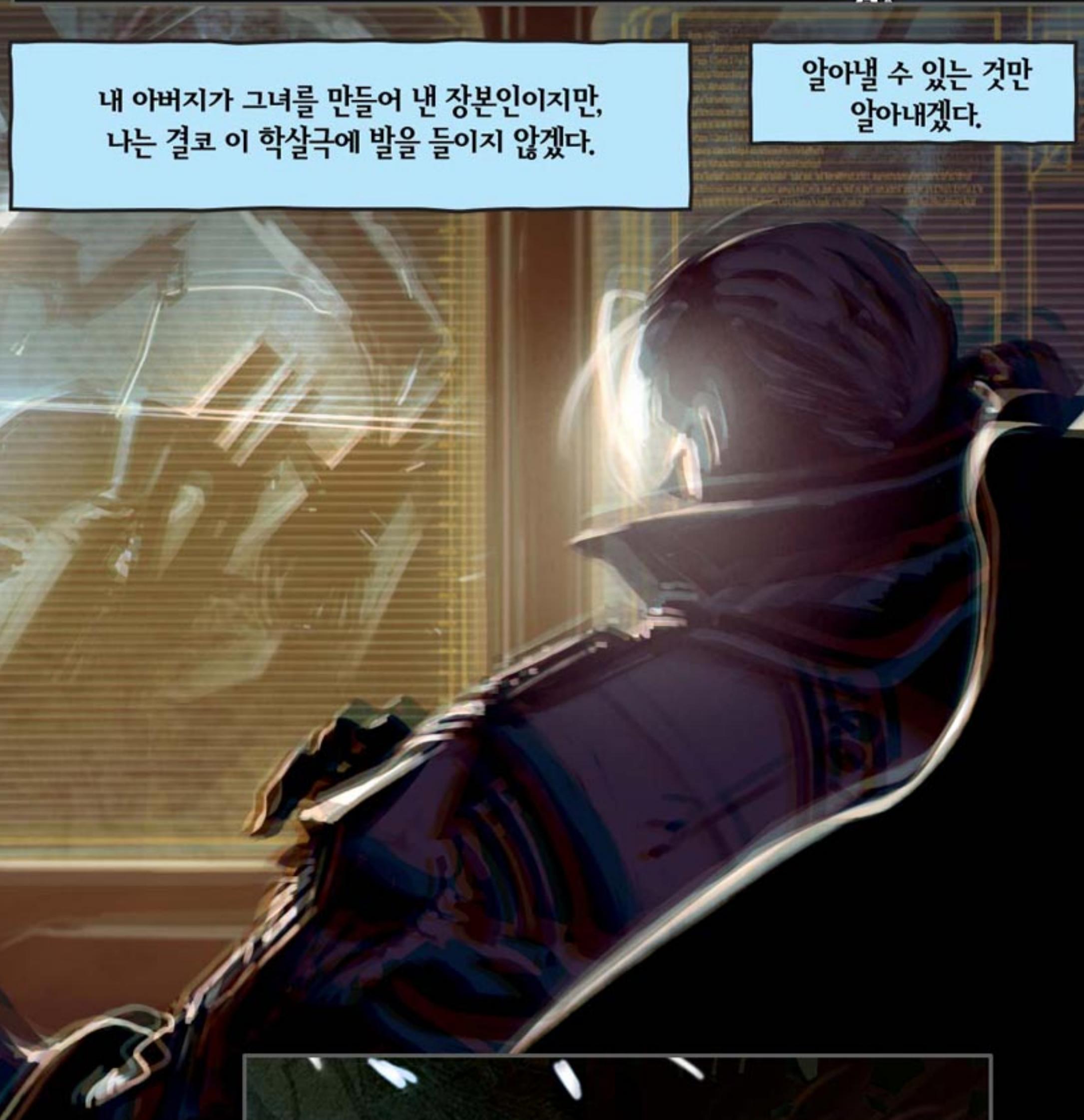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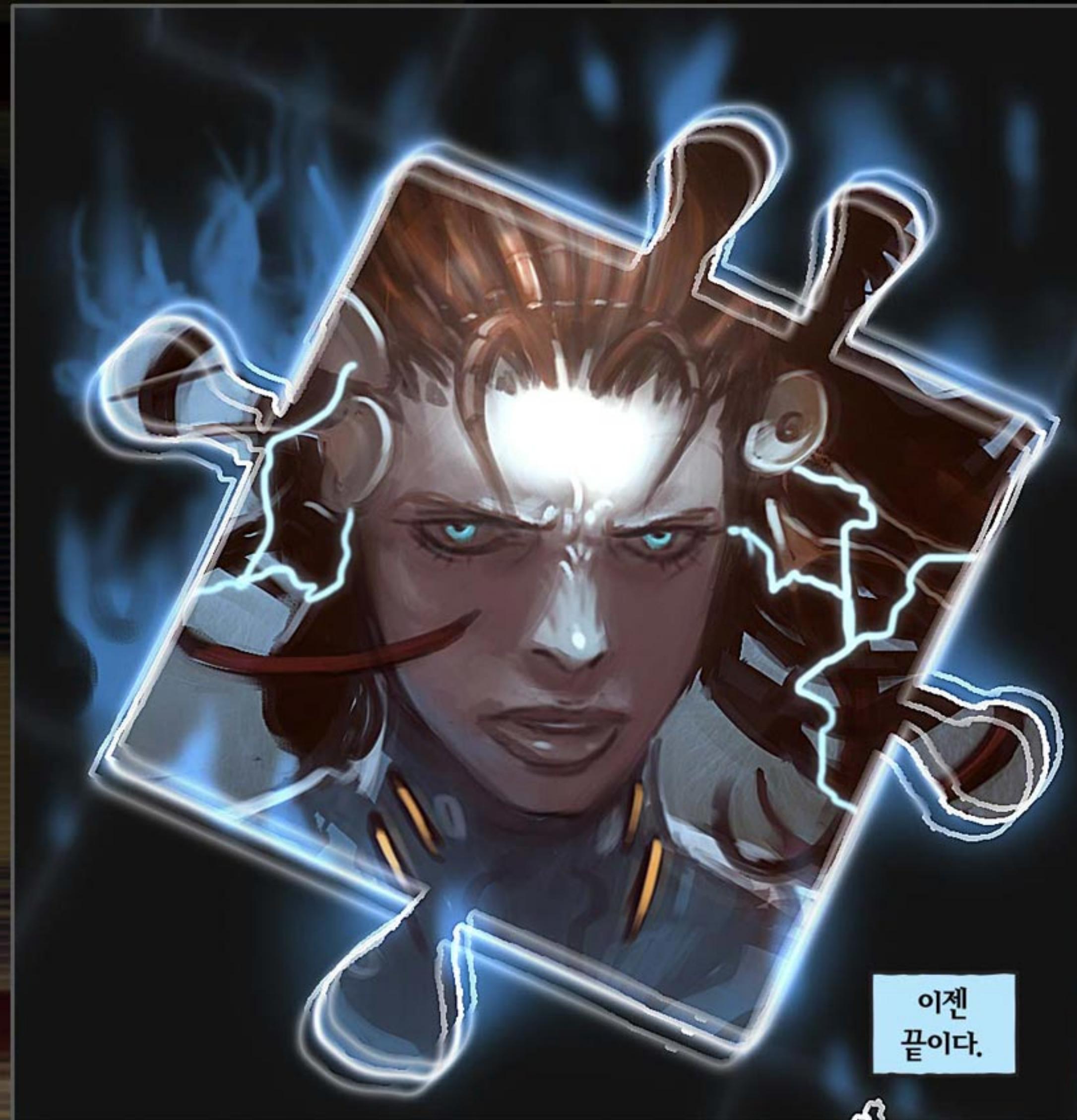
복수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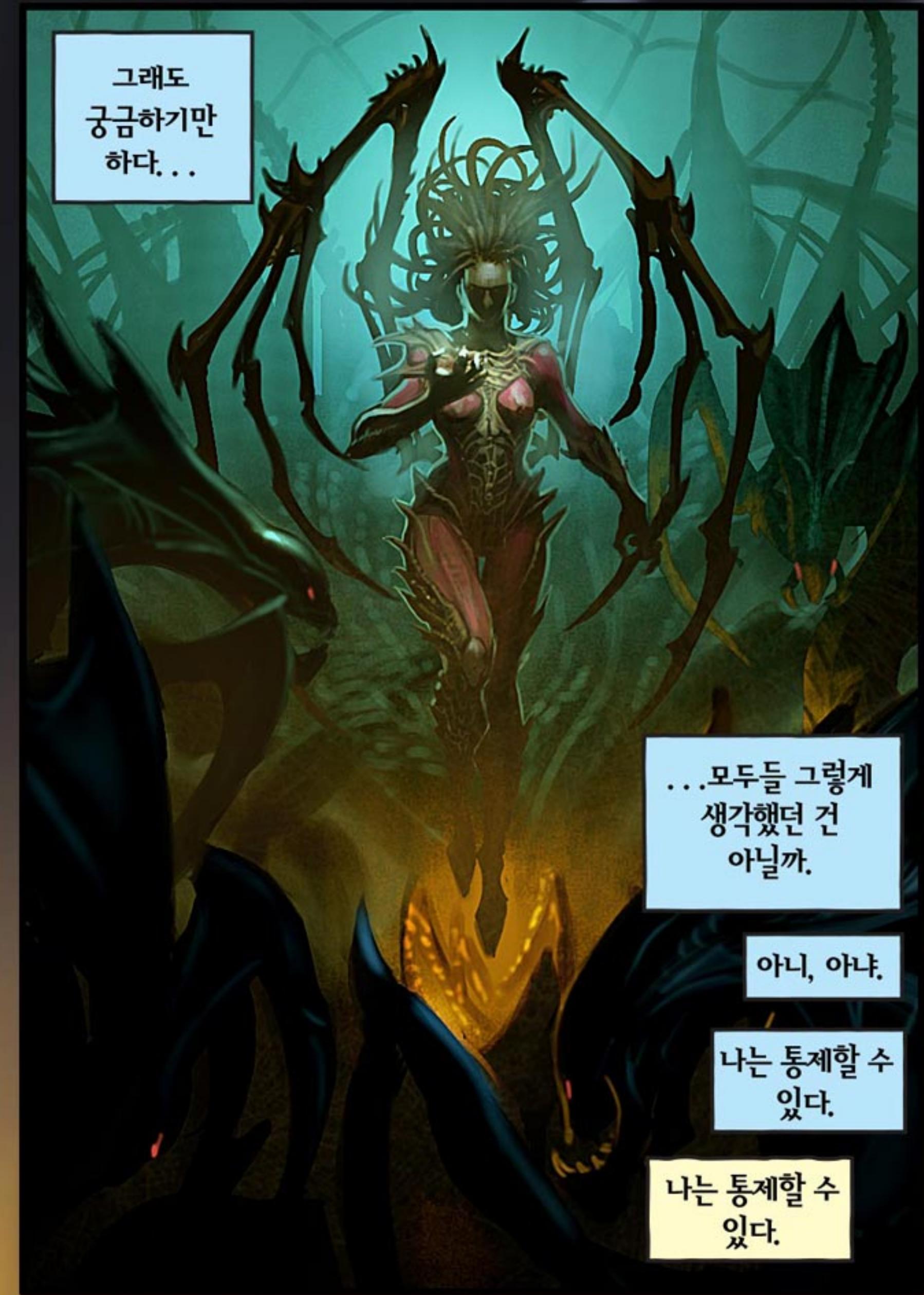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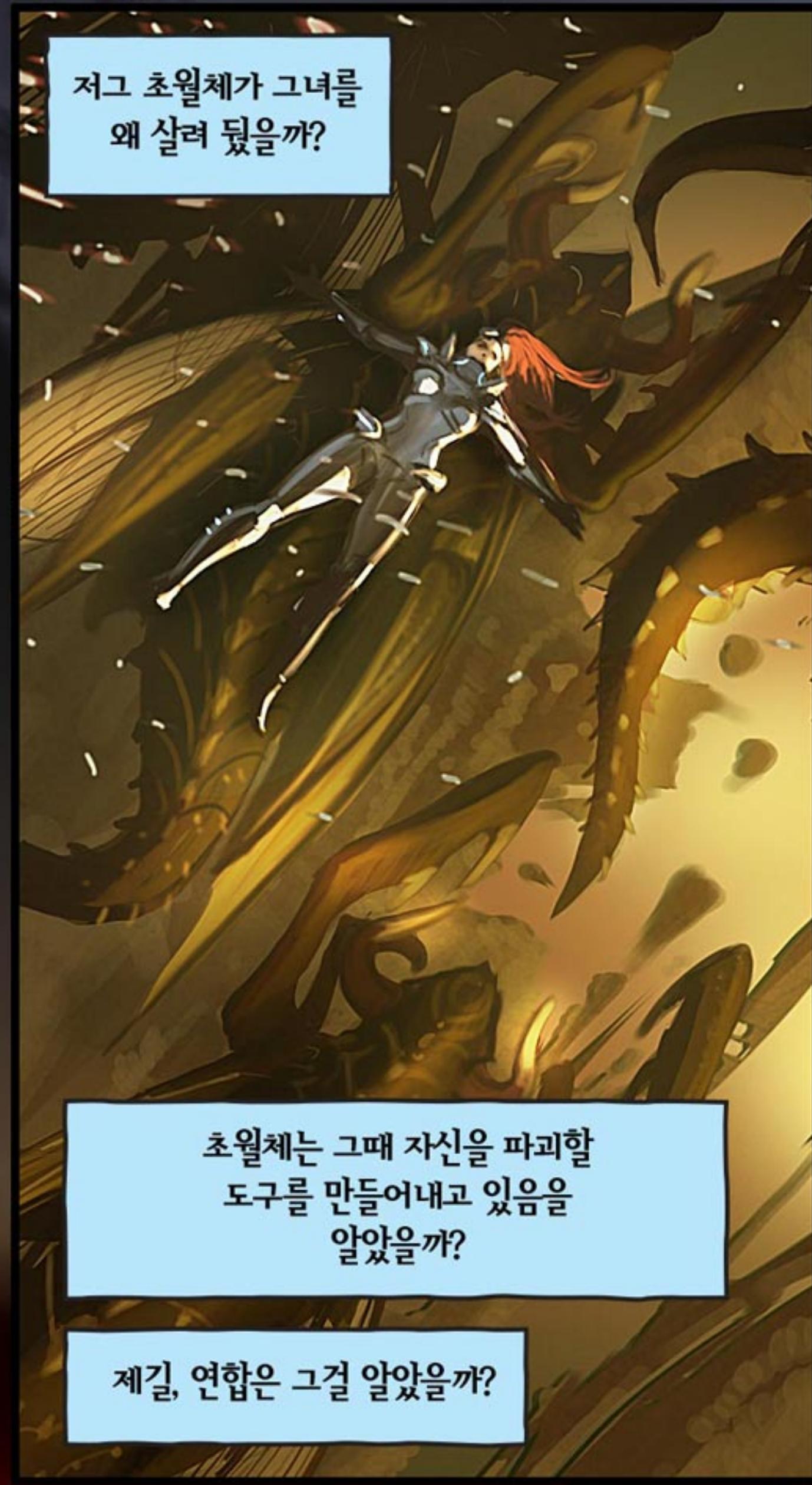
희망과 복수. 그 말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드디어 목표가 생겼다.
선택.

나는 그곳을 선택했다. 내 행동을
선택했다. 처음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있었다.

느끼고, 아끼기
시작했다.

믿기 시작했다.





망막 신원 확인:
밸리안 맹스크

손톱이 피투성이인
괴물...

16초 후 폭발.

망할 제임스 레이너는 우주의 절반을 헤치고
날아와 죽음의 아가리에서 괴물을 끌어냈다.

그 어리석은 녀석이 내게 희망이라면,
한번 기대해 볼 만 하겠는데.

밸리안,
중요해.
네가 비열하고 추잡한
겁쟁이 맹스크 가문의
전통을 짊어지고 있을
시간도 9초 밖에 안 남았어.

09초 후 폭발.

07초 후 폭발.

얘기 안 했었나?
그 조그마한 둥지 주위에
있는 폭탄을 손 좀
뺐었는데...

03초 후 폭발.

...잘난 아비의 발걸음을
따르지 않겠다는
네 얘기를 좀처럼 믿을 수
없어서 말이지..

폭발이
취소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아직 작동하고 있어...
그래도--

아니.

밸리안,
카메라와 검사
파워는
치워버려.

멍청한 퍼즐은
이제 됐어.

내게서 뭔가 알아내고 싶어?
날 따라올 수는 없을 텐데.

나... 내가 오늘
밤에 시험 과정을
다시 준비하겠소.

다시...
시작합시다, 사라.

난 인간이
아냐.